

화순 '3대 친화도시' 조성 속도 낸다

〈아동·여성·고령〉

군, 전남 지자체 첫 인증 현판식
비전 공유·관계기관 등과 협업
구충곤 군수 "따뜻한 복지 실현"

화순군은 지난 16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열고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전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했다. 민선 7기 '주민 주도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와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군민 대표(염은광·이서연), 여성친화도시 대표(최육경·박보라), 고령친화도시 대표(김종화·최종상) 등이 참석했다. 화순군은 이날 제막식을 시작으로 3대 친화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충곤(오른쪽 세번째) 화순군수와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 군민 대표, 여성친화도시 대표, 고령친화도시 대표 등이 지난 16일 화순군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제막했다. <화순군 제공>

부서 간 협업을 통해 3대 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보편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한 3대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점검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안중근 의사 추모 온라인 분향소 설치

장흥군, 순국 111주기 맞아...26일 해동사서 추모제 봉행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분향소는 안 의사 순국일인 오는 26일까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며 현화와 함께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추모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국 유일의 안중근 의사 추모 사당인 장흥 해동사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흥군이 주최하고 안중근기념사업회 주관하며, 죽산안씨 문중과 유관 기관·단체 등을 초청해 봉행한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올해 111주기 추모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해 '분향소'로 대체"라며 "행사 참여 대신 추모제 당일 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분향소에 많은 추모글을 남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쓰레기 수거업체 비리 의혹 감사 착수

나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H 개발의 위탁운영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H개발에 편법과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H개발이 수수료 납부 필증(칩)을 부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점과 요양시설 등 15곳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수거작업을 했으며, 자체 처리를 해야 할 대형 배출업소 35곳의 쓰레기도 불법으로 수거 처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나주시가 수천만 원의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으며 지난해 말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부당이득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비대면 화상회의실 무료로 이용하세요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한다. (제)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400만원을 들여 비대면 화상회의실 2개실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거점기관에 개방형 화상회의

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상회의실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위한 65인치 대형모니터와 전자칠판, 고해상도 카메라,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 등 첨단장비를 갖춰 최대 15인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화상회의실은 나노센터와 나노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장성군 내 모든 기업에게 무료로 개방 운영할 예정이다. 화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전남화상회의실 홈페이지(www.online-meeting.jntp.or.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업무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항"이라며 "화상회의실 개방을 통해 장성지역 기업들의 디지털 근무 환경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악성 민원 대응 강화...녹취시스템·CCTV 설치

강진군은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하고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운영한다. 악성 민원전화(장난·음해·협박·욕설 등), 언어폭력 및 업무방해를 예방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

쟁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도입했다. 현재 강진군에서 운영 중인 녹취시스템은 군청 실과소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포함해 300여개 회선이다. 담당 직원이 통화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녹취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와 함께 녹취가 시작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며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CCTV·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달현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은 민원인에게 위압감·통화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원활한 민원응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세열골

"산림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

이장수 광주·전남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

"8만여 조합원의 산림소득 증대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산림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산림조합장 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장수(70) 장흥군 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숲가꾸기, 조림, 벌채 사업을 둘러싸고 위탁 경영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일선 조합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사업 개발에도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1994년에 발족한 광주·전남산림조합장협의회는 동부권(보성·고흥·순천·구례·여수·곡성·광양), 중부권(광주·장성·영광·함평·담양·화순·나주·무안), 서부권(완도·진도·신안·영암·해남·강진·장흥) 3개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22개 산림조합의 현안과 중앙회 주요 시책에 대한 협의체다. 협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忠武公**, 육지에는 **鄭忠武公**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난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총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2020년 신간!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제5쇄 판매중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인기리 판매중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최신간 양장

7년전쟁의 종전 7주기가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